

‘개콘’ 1000회 ... 축하보다 쓴소리

히트 코너·스타의 산실 전유성 “이젠 나태·식상” “초심 돌아가야” 목소리 제작진 “웃음 본질 고민 계기”

한때 스티비 윈더의 ‘파트 타임 러버’ (Part Time Lover)가 ‘월요일’ (월요일마다 피로가 느껴지는 증상) 노래의 대명사로 불리던 때가 있었다.

매주 일요일 밤, KBS 2TV ‘개콘서트’ (이하 ‘개콘’)의 엔딩곡인 이 곡이 들리면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과 학생들은 이제 주말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1999년 9월 1회 방송을 시작한 ‘개콘’이 오는 19일 방송으로 어느덧 1천회를 맞았다. 역대 최장수 코미디 프로그램이자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의 원조로, ‘갈 같이 삼형제’, ‘미백이’, ‘대화가 필요해’, ‘분장실의 강선생님’, ‘달인’, ‘봉숭아 학당’ 등 무수히 많은 히트 코너와 스타 코미디언을 낳았다.

‘개콘’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개그맨 전유성(70)은 13일 오전 영등포구 여의도 KBS에서 열린 ‘개콘’ 1천회 기자회견에서 “‘개콘’이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날 행사엔 김미화(55), 김대희(45), 유인상(40), 신봉선(39), 강유미(36) 등도 참석했다.

한때 시청률 30%도 넘는 시절이 있었지만, 최근엔 수년째 한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개콘’의 부진에 대해 그는 “대학로에서 검증된 코너들을 TV로 끌고 와 성공을 했는데 점점 검증 없이 TV에서만 재밌다고 (방송을) 결정하는 게 나타나고, 식상한 감을 갖게 되지 않았나 한다”라고 진단했다.

원로인 그는 지금까지 ‘개콘’을 거쳐간 제작진에 대한 불만도 내놔다. “나한테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PD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도 없었다”며 “충분히 ‘개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찾아오질 않더라. 물어보시면 대답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개콘’은 한때 화제 코너는 직장인, 초등학교 할 것 없이 유행어를 줄줄이 따라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최근

엔 트렌드에서 뒤쳐진 형식과 외모 비하·가학적 논란으로 인한 지속적인 부진에 시달린다.

이러한 위기 속에 1천회를 맞는 기자회견회에서 제작진과 출연자들은 한결 같이 ‘개콘’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종재 PD는 “과거에 못 미치는 건 알고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며 “구체적 성과가 잘 보이지 않아 저도 답답하고 같이 하는 개그맨들도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개콘’을 부흥기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나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원 PD는 “다양한 방법이 많지 않다. 그게 늘 고민”이라며 “솔직히 공개 코미디가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개콘’이 공개 코미디를 떠나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개콘’이 지속적인 외모·여성·특정 직업군 비하로 점차 시청자를 외면하는 데 대해선 “최근 ‘개콘’엔 그런 내용은 없다”며 “짙어져야 하는 숙명이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다면 개그 소재로 삼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유성, 백재현, 켈투 등과 함께 ‘개콘’ 창시 멤버인 김미화는 “‘개콘’이 처음엔 신선했지만 20년 정도 지나오니 식상할 수도 있다”면서도 “공개 코미디가 오늘날 안 맞는 건 아니라고 본다. 조금 더 시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면 분명히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형근 PD는 “KBS는 공영방송”이라며 트렌드에 뒤쳐진 듯한 공개 코미디와 콘텐츠가 오늘날 지니는 의의를 강조했다.

박 PD는 “이들 장르는 대중문화사에서도 중요하고 KBS가 (시청률이) 안 나온다”고 포기하는 건 외려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 거라고 본다”며 “더욱더 한국 코미디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년간 ‘어떻게 웃길까’만 고민했지, ‘어떤 웃음을 줘야 하나, 어떤 웃음이 필요한가’라는 웃음의 본질에 대해선 크게 고민을 못 했다”며 “어쨌든 사람을 웃겨야 한다는 코미디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천회를 기점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남뉴스

식객 허영만, 전국 팔도 백반 찾아 떠나다



TV조선 ‘백반기행’ 오늘 첫 방송

TV조선은 14일 밤 10시 새 프로그램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을 선보인다.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포맷으로 제작돼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화 ‘식객(食客)’의 원작자인 만화가 허영만이 일상과 허기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전국 각지의 감칠맛 나는 백반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허영만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음식도 많은데 백반(흰 쌀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을 놓는 한상차림)을 선택한 이유가 백반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14일 TV조선이 전했다.

매일 바뀌는 반찬엔 가족을 생각하며 장

을 보고 매 끼니 잔을 격정하는 어머니 마음이, 매일 백반을 찾는 이들에게 하루도 쉬운 날 없는 직장인의 애환이, 밥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통해선 그 지역 정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매월 프로그램에 음식에 일가견 있는 스페셜 게스트가 함께한다. 최근 요리 토크쇼에서 셰프 겸 MC를 시작으로 미식가로서 면모를 보여주는 배우 정보석, 15년 차 배데랑 주부이자 다양한 요리 명인의 비법을 전한 배우 김원희, 미식가로 알려진 배우 오지호, 요리하는 것을 즐기며 이탈리아 요리까지 섭렵한 오상진 아나운서 등이 출연한다.

연남뉴스

연정훈 - 한가인 득남... 두 아이 부모됐다

배우 연정훈(41)-한가인(37) 부부(사진)가 13일 아들을 얻어 슬하에 1남1녀를 두게 됐다.

두 사람 소속사는 이날 “한가인이 이날 오후 2시 서울 모처에서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다”라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며 안정과 회복을 취하고 있다. 큰 축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연정훈과 한가인은 2005년 4월 결혼해 11년 만인 2016년 첫째 딸을 얻었으며, 약 3년 만에 둘째를 맞이했다.

연정훈은 최근 MBC TV 일요극 ‘내사



랑 치유기’에, 한가인은 OCN 주말극 ‘미스트리스’에 출연했다.

연남뉴스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여름이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국민 여러분(재)		00 우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회사 가기 싫어 2019(재)	00 12 MBC 뉴스 25 다큐 나는...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험설계(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거북이 뉴스 50 한국인의 밥상(재)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KBS 창작동요대회 수상곡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빅 55 뽀뽀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경성판타지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원손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력
8	30 여름이 부탁해	30 글로벌 24 55 국민 여러분(재)	55 5-18 다큐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오솔밭 김제동	00 국민 여러분	0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00 초면에 사랑합니다
11	35 UHD 숨터 40 거리의 만찬(재)	10 회사 가기 싫어 2019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결박 다큐멘터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름다운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너티니츠 07:30 고고디노 공룡탐험대 08:00 당동명 유치원1~2 08:30 띠띠뽀 띠띠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09:00 뽀뽀뽀 뽀뽀로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극한직업 스페셜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레몬 발효액과 참외냉국〉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미래교육 플러스 13:00 다큐 오늘 13:10 최고의 요리비결 〈우영채 무침과 과일고추 튀김볶음〉 13:40 사건 브리핑-안전상황실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15:15 탐원 구조대 15:45 몬카트 16:15 짹과 팡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6:45 당동명 유치원1~2 17:15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4일(음 4월 10일辛亥)
子 36년생 중차대한 때에 번잡함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발생한다. 48년생 지속적이어야만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60년생 집중할 필요가 있다. 72년생 내 보내는 것보다 안으로 모아 들이는 것이 낫다. 84년생 얼음 녹듯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78, 91	午 42년생 스스로 드러나서 쉽게 파악 될 것이니라. 54년생 결정적인 시기에 거의 압박했다. 66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탈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78년생 임시방편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90년생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97, 76
丑 37년생 받아들인다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49년생 원칙에 따라야만 탈이 없다. 61년생 반복적인 확인 작업이 일관성 있게 계속되어야만 놓치지 않는다. 73년생 못 본체하고 넘어가라. 85년생 소기의 결실에 따른 만족도가 상당히 높겠다. 행운의 숫자 : 12, 10	未 43년생 모든 일에 있어서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어야한다. 55년생 원인과 결과를 잘 따져가면서 진용을 정비해야 한다. 67년생 항상 유동적인 변수까지 감안하라. 79년생 착수만 한다면 일시천리로 추진된다. 91년생 과감하게 미련을 버려라. 행운의 숫자 : 49, 44
寅 38년생 무탈 할 것이니 노파심을 버려도 된다. 50년생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낫다. 62년생 모든 것을 보류하고 운통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74년생 무시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86년생 모르고 있었으면 더 나은 변한 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6, 02	申 44년생 앞장거리 벌어들일 수도 있으나 대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56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68년생 조정한다면 향상된 면모를 보일 수 있다. 80년생 정성을 들이면 얻는 바가 많은 것이다. 92년생 현실적이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3, 47
卯 39년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실행한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이다. 51년생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상이다. 63년생 숨고르기를 하면서 속고해 본다면 판단이 서리라. 75년생 더딜 수밖에 없다. 87년생 때를 놓치지 되면 쓸모가 없다. 행운의 숫자 : 01, 53	酉 45년생 근원을 찾아본다면 새롭게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니라. 57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소통할 수 있으니라. 69년생 이행해야 뒤따라 있다. 81년생 연결 고리를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겠다. 93년생 밤심한다면 잇따른 약재가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3, 99
辰 40년생 유희상박의 치열한 경쟁이 보인다. 52년생 학수고대 해왔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64년생 가벽을 넘겨도 될 일이다. 76년생 하향 조절하는 것만이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88년생 주변의 체면 때문에 참아야만 하는 고통이 지대하다. 행운의 숫자 : 65, 60	戌 34년생 박자를 가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 46년생 경직 되어 있다. 58년생 조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면역하기 힘들 것이다. 70년생 현실적으로 실현 될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 82년생 기대했던 바는 들어오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94, 31
巳 41년생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라. 53년생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상책이다. 65년생 사제적 관념이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준다. 77년생 열린 사고로 임해야 무난하게 실행 될 것이다. 89년생 우회하더라도 지장이 없으니 착실하게 임하라. 행운의 숫자 : 25, 95	亥 35년생 승산의 여지는 충분하니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는 말라. 47년생 만관하여 왔던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것이다. 59년생 고요한 일상에 파문을 던지는 이가 보인다. 71년생 상호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83년생 그냥 두고 보자. 행운의 숫자 : 30, 5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